

대강절 첫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1ST SUNDAY OF ADVENT

주후 2022년 11월 27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04 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통일 10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15 번 구주 강림 (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이사야 (Isaiah) 21:5	한경준 집사
찬 양 Anthem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찬양대
설 교 Sermon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빛 되신 주”	다같이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좇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죄된 생각과 욕망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전 10:3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개역개정 사25)

“Come, O house of Jacob,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NIV Isaiah 2: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1/27 (주일)	11/28 (월)	11/29 (화)	11/30 (수)	12/1 (목)	12/2 (금)	12/3 (토)
	대상23	대상24,25	대상26,27	대상28	대상29	대하1	대하2
본문	벧전4 미2 눅11	벧전5 미3 눅12	벧후1 미4 눅13	벧후2 미5 눅14	벧후3 미6 눅15	요일1 미7 눅16	요일2 나1 눅17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1/30수 오후7:30)	“진리의 영광 미혹의 영” (요일4:1-6)
토요 새벽기도회 (12/3토 오전6:30)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사103:8-22)

지난 주일(11/20) 말씀 – 추수감사주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22)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6-18)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1)기쁨과 2)기도와 3)감사라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1)첫째는, 기쁨으로서,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경험하는 기쁨’ 즉,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의미하고 2)둘째는, 기도로서, (이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어떤)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귄이자, 또한 영적인 교제이며, (마지막) 3)셋째는, 감사로서, (이는)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또한 (우리는) 불행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표징 (True Christian Identity)은 (이처럼) 1)기쁨과 2)기도와 3)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